

고대 중국의 화장실 기록-2

# 명·청(明·淸)시대에 이미 화장실 문화가 있었다(?)



글 | 조의현  
산본연구소 대표, 한화협 이사

**지**난호에는 평민들의 화장실에 대한 개관을 서술했다. 이제 눈을 돌려 또 다른 풍광을 보여주는 귀족들의 화장실을 살펴보도록 하자. 이 방면에 비교적 눈에 띄는 것은 위·진(魏·晋)시대의 몇 가지 기록이다. 가령 「세설신어(世說新語)」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석송(石崇)의 집 변소에는 언제나 10명의 시녀가 늘어서 시중을 들었다. 모두 화려한 옷을 곱게 꾸몄으며, 안에는 갑전분(甲煎粉)이나 침향즙(沈香汁) 등 갖추지 않은 것이 없었다. 또한 (손님에게) 새로운 옷을 주어 갈아입고 나오도록 하였다. 이에 손님 중 많은 사람은 부끄러워(여자 앞에서 옷을 벗어야하므로) 화장실을 가지 못했다.

유식(劉寔)이 석송을 찾았을 때, 변소에 갔더니 진홍색의 긴 휘장을 드리운 커다란 침상에 매우 화려한 요가 깔려 있고, 그 옆에는 시녀 둘이 비단 향주머니를 들고 있었다. 그는 황급히 달려나와 석송에게 이르길, "(당신) 방안으로 잘못 들어간 것 같소" 라고 했다. 그러자 석송은 "저기가 변소요"라고 했다.

왕돈(王敦)이 공주에게 장가를 들었을 때, 변소에 말린 대추를 담은 옷칠한 상자가 있었다. 원래 코를 막는데 쓰는 것인데, 그는 변소에 과일을 차린 줄 알고 다 먹어 버렸다.

또한 「낙양가람기(洛陽伽藍記)」와 「양양기(襄陽記)」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낙양가람기》 진원성의 집에 있는 변소에 가면, 상술탕(上術湯)에 손을 씻고 화나무판자로 변기 뚜껑을 삼으니 이는 도성에서 제일이라.

《양양기》 유향화의 집에 있는 변소에 가면, 향기로운 연기가 위로 올라온다.

귀족들은 경제력의 우세를 지녔기에 사용하는 화장실 역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화려했다. 「운림유사(雲林遺事)」는 명대(明代) 귀족의 화장실을 기록하고 있는데, 높은 고루(高樓) 양식으로 아래에는 목격(木格:나무상자)이 있고 그 가운데 거위 털을 두어 변이 떨어지면 거위 털이 날아올라 변을 덮었다. 곁에 있던 동자(童子)는 곧 변을 가지고 나갔으므로 악취를 맡을 수가 없었다. 이는 도리어 화장실 건설에 있어 일종의 공헌을 한 셈이다.

귀족에게 있어 화장실은 단순히 배설의 장소가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의미 있는 장소

였다. 도종의(陶宗儀)는 「남촌철경록(南村輟耕錄)」에서 이와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를 열거했다.

다만, 화장실에도 명쾌한 일면이 있다. 좌사(左思)는 「삼도부(三都賦)」를 창작할 때 붓과 벼루를 화장실에 가져와 작업을 진행했으며, 구양수도 평소에 화장실에서 독서를 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자고신(紫姑神)으로, 유경숙(劉敬叔)의 「이원(異苑)」의 기록을 보면, 자고(紫姑)는 본래 첩(妾)으로 정실부인의 질투를 받아 정월(正月) 15일 격노하여 사망했는데, 사람들이 그를 위해 형상을 만들어 그 영혼(靈魂)을 맞이했으며, 장소는 화장실 옆이나 돼지우리 옆에서 행했다. 이후 송대(宋代)의 「세시광기(歲時廣記)」에는 이러한 의례에 대해서 "또한 반드시 청결해야 한다"는 문구를 보충해넣고 있다. 또한 심괄(沈括)의 「몽계필담(夢溪筆談)」에서 말하길, 자고측신(紫姑神)을 맞이하는 것은 반드시 정월(正月)에 할 필요는 없으며 항상 가능하다고 했다.

사실상 이는 사람들이 측소에 대한 신(神)을 만들어 화장실에 대해 기피하지 않게 함으로써, 청결함을 유지하려는 심리를 보여준다. 따라서 자고(紫姑)라는 화장실 신에 대한 제사는 부녀들이 담당하게 되었으며, 이 때 점을 치거나 복을 희구하고 뽕나무 수확의 풍년을 기원하는 등의 즐거운 정월 행사로 정착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옛 사람들이 화장실 외에도 변기의 설계와 창조에 힘을 썼음을 상기시켜 준다. 가령 조경동(曹庭棟)의 「양생수필(養生隨筆)」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노인들은 밤에 잠이 별로 없어서 소변을 자주 보러 가는 것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변기(便器)는 실로 중요하다. 도자(陶瓷)나 주석으로 만든 것은 모두 들고 다니기에 다소 무겁다는 점이다. 그러나 납으로 만들면 아주 얇게 만들 수 있지만, 다만 너무 가벼워 쉽게 넘어질 수 있다. 따라서 옆면은 곧고 바닥은 평평하게 하고, 둥글면서 넓적해야 안정감이 있다.

대변용 청통(谷桶: 변기)은 오래 앉아 있으므로 허리와 허벅지가 함께 시큰시큰 한데, 이는 쭈그려 앉아 있으나 의지할 대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둥근 의자의 앉는 면에 구멍을 내는데 그 구멍은 청통의 크기와 같아야 한다. 그리고 그 위에 솜으로써 깔개를 깔되 그 깔개에도 의자에 넣던 구멍과 같은 크기의 구멍을 뚫는다. 청통을 그 아래에 끼우면 앉을 때 편안하고 냄새도 안 나게 된다."

또한 「산거청공(山居淸供)」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큰 대나무를 가지런히 잘라서 변기를 만들 경우, 한 쪽 끝은 조금 잘라서 평평하게 하여 바닥으로 삼고 옷칠을 한다. 다시 작은 대나무를 잘라서 주둥이를 만들고, 손잡이는 대나무 조각들로 만들어 붙인다. 밑이 넓적한 표주박을 골라서 가운데에 오동나무 기름을 넣어 접착한다. 이처럼 대나무로 만드는 것은 모두 가볍고 소박한 아름다움을 지니게 된다. 이왕 같은 방식으로 다시 대변용 둥근 의자를 만들 때는, 아래에 조밀하게 합판을 붙이고 별도로 작은 방을 마련하여 벽에 안치시킨다. 그리고 벽 뒤로 구멍을 내고 요강을 끼워 넣어 배설물을 받는다."